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이'
24일 고창문화전당서

짜릿함 유쾌함 다 있다

리듬체조 · 기계체조
태권도 · 비보이 등
다양한 퍼포먼스 선보여
퓨전무술 장면도 인상적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이'가 24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선보인다.

고창군이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난타', '점프', '비밥'을 연출한 최철기 사단의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이'가 선보인다. 짜릿한 퍼포먼스와 유쾌한 코미디의 환

상적인 조합 '플라이'는 2011년 경주엑스포 상설공연을 시작해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투어는 물론 이스탄불, 홍콩 등의 해외공연까지 총 1,300여 차례의 공연을 펼쳐 누적관객 77만 명을 돌파한 공연으로 스펙터클한 영상과 액션을 보다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했다.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판타지를 담은 '플라이'는 난버벌

형식으로 제작되어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전 기계체조 국가대표, 전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 세계적 수준의 비보이 등 각 분야의 국가대표급 배우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남녀노소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통 체조 장면과 무예가 결합된

절도 있는 퓨전무술 장면은 공연예술로도 손색없는 스포츠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여과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문화관광과 김용태 과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오감만족의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2)에서 현장예매 가능하다. /기동취재반



산천경물 대자연
우리들의 스승
전북대 산디과
중 채창란 교수 초청전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중국 광저우대학 채창란 교수의 중국 수묵화작품초청전을 연다. 광저우대학 채창란 교수는 1997년 광저우 미술학원에서 중국화를 전공하고 광동성 미술가협회원으로 오랫동안 중국화 전문교육학과 작품 창작에 매진해오며 국내외에 많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 예술대학 본관 2층, 산업디자인학과 특별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5월 23일 오후 5시 예술대 본관 2층에서는 전시 오프닝 특별 행사로 채창란 교수가 직접 작품을 그리는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중국 광저우대학 간 학술과 문화예술 교류 성격의 전시회다. 전시작은 채창란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범으로 그린 작품들. 중국 수묵 화계에서는 이렇게 꾸밈없는 작품들이 화가의 실력과 품격을 드러낸다고 한다. 작가는 "중국 청나라 화승석도가 말씀했듯이 화가는 객관적으로 많은 산천경물을 보고, 주관적으로 그 본 것 들을 느끼고 이해하며, 그것을 융합하여 마음속에 그려둔 것을 자신의 신미와 표현수단으로 예술을 전달하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산천경물의 대자연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선생님께 자연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핵심적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예술정신이다. /기동취재반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에 김윤선씨

흥부가중 '두 손 합장' 장면 구슬프고 청아한 목소리로 소화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날린 김윤선씨(36, 전북 남원)가 세 번째 도전 끝에 판소리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21일 남원 광한부특설무대에서 열린 제45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김씨는 흥부가 식량을 구하려 놀부집에 갔다 형 놀부와 형수에게 두들겨 맞는 '흥부가 중 두 손 합장' 장면을 불러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씨는 청아한 목소리로 구슬프게 대목을 완벽하게 소화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99점이라는 고른 점수를 받았다. 김씨는 남원시립국악단소속으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다. 초등하고 6학년 때 소리로

입문해 이난초 명창과 전인삼 명창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학력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1기 출신으로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수료했다. 심사위원인 박양덕 명창(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7회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은 "김씨는 목이 맑고 소리침이 좋다. 공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김윤선씨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더욱 열심히 소리에 매진하라는 체적으로 생각하고 스승님과 소리의 고장 남원의 자랑스러운 명창이 되도록 더 열심히 소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무주 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문화체험 공간 '각광'

무주군 형설지공군립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된 공예 프로그램(19:00~21:00)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책 모양 디자인 시계를 비롯해 선인장 행잉 바구니, 납킨 콜라주 아트 거울, 천연이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5월 24일(19:00~20:00)에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19:00~21:00)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글쓰기를 비롯해 책임기 방법 등 독서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 7월 26일(19:00~20:00)과 11월 1일에는 미취학 유아 및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